도자기 필통과 옥수수 속대 빨뿌리

김정환
시인

공예가 형수가 허겁지겁 챙겨 주느라
구경(口徑)이 너무 광대한 청자색 도자기 필 통을
역시 선물 받은 다발 연필과 다발 색연필과
아메리카 인디언 편지 칼과 스페인산 검은 이슬람 무늬
쥘부채와 사전용 막대 돋보기 세워 채우니
그
미리 깎아놓은 울울창창 죽창의
악몽을 벗어났다. 아니 그게
아직도 있었나? 찔리는 것보다 찌르는
악몽이던 그게?
솟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큰아버지 근기(近畿) 하천 그물질 한 번에
양동이 넘치도록 걸렸으나 이제는
근기 유원지 식당에서도 값이 `시가`로 매겨진
쏘가리매운탕 어감도
솟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진공청소기 되게 떠든다. 제 혼자 세상이고
세상에 청소만 한 게 없고 청소하느라
일생을 소모하는 거라는 투다.
종이신문이 세계관처럼 펼쳐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내가 나를 Search하는 나의 고독인데 내가
고독이라는 말을 모른다.
고장 난 인터폰을, 그때 생각 난 말 `요비링`이 썩 괜찮아서
아직 안 고치고 있는 정도. 내가 아는
내용이 호탕했던 사람들은 너무 크게 얻어 맞아 그리
길길이 뛰다가
눈에 보이게 죽었거나 안 보이게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그러기 전 날 그들에게

한 급 높은
잡탕밥 한 그릇씩은 유언으로 얻어 먹었다. 그래서
40 년 전인데 늘 어제의
잡탕밥이고 요비링이다.
천재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라도 남이 흠집이 먼저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오랜 세월의 천재다. 그들 위해 경악의
꽃다발 폈다, 꽉 찬
도자기 필통.
Corncob pipe는 corncob pipe, 옥수수 속대로 만든
담배 빨뿌리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야전 사령관으로서 애용했고,
정말 좆 만하다. 어찌나 그런 지
그 안에 아주 많이 아주 깊이
숨어 있다.
이를 테면 자연의
쓰레기 활용. 도시 감각 보들레르 곁에
아직 있는 늙은 농촌 창녀. 11차원의 스티븐
호킹 너머 여성의 가정 폭력에도 불구한
모음(母音)의 집과 11 차원을 4차원으로
응축하는 고전의
새로움을 위한 가벼운 깊이.
파탄 속으로 몸을 숨기는
재능과 우월.
속지 없이 부서져 더 새까만 비닐
명반 중에도 명반.
멀리 가기 위하여 미리
느슨할 필요 없지. 미리
감격할 것도 아니다.

무보(舞譜)

*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

박연준

시인

오른 다리를 오른 귀에
왼 다리를 왼 귀에

선과 새
선과 새

불러 오세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의자의 숨은 이름을 외치세요
다리에게 보내는 이름
가슴에게 보내는 이름
왼쪽과 오른쪽의 혼례에 참석할 이름
부위마다 새로 부친 이름

선과 새
선과 새

오른 다리는 왼쪽 허리에게
왼 다리는 오른쪽 귀에게

잠들지 않은 채 잠을 뉘어 보세요
서지 않은 채 까치발을 세워보세요

죽은 사람과의 열여덟 번째 겨울을
단전에 모으세요

선과 새
선과 새

불러 오세요

오른쪽으로 피루엣 세 번
왼쪽으로 빠 드 샤(pas de chat) 다섯 번

암전이 될 때까지
롱 드 잠(ronds de jambe)
롱 드 잠(ronds de jambe)
지속하세요
한 다리로
지나가는 세월을 그리세요

발끝으로 썼던 이름을 지우듯이

그리세요 지우듯이,
계속

그리세요

비브라토, 비브라토

이기호

작가

1.

그의 아내가 낙원상가까지 직접 나가 중고 첼로 한 대를 사 온 것은 삼 주 전, 토요일의 일이었다. 첼로라니! 그는 검은 가죽가방에 얌전히 들어 있는 첼로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내는 그런 그의 옆에 앉아, 검은 가죽가방 뒤에 들어 있던 활을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리저리 비춰 보았다. 허공에 대고 몇 번 휘둘러보기도 했다. 마치 이제 막 숫돌에 간 장검을 살펴보는 무사처럼 아내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거야 원, 무서워서 농담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그가 지나가는 말로 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달 전쯤의 일이었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일이 끝나면 가끔 아내가 밤 열 시부터 철야로 주방일을 보는 김밥천국에 들러 함께 퇴근을 하곤 했다. 아내가 퇴근 직전 하는 일은 그날 치 주문 김밥을 은박지에 도르르 말아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었다. 가끔 주문량이 많은 날엔 그도 팔을 걷어붙이고 박스 나르는 일을 돕곤 했다. 그러다 보면 그의 몸에도 아내의 그것과 같은 시큼한 단무지 냄새가 배곤 했는데, 그 냄새가 종종 그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밥천국에서부터 그들 부부가 사는 다세대 반지하방이 있는 동네까지는 버스로 네 정거장 거리였다. 주위가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 그들 부부는 그 거리를 항상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갔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사거리를 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마주보고 있는 운동장 담벼락을 걷다 보면 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곳은 불과 이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 부부의 주소지였던, 28평형짜

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남들 다한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거듭하다가 일 년 반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그러나 여전히 대출 이자는 내야만 하는 아파트가 있는 곳……. 그래서 그는 될 수 있으면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 일부러 중학교 뒤쪽으로 난 길로 빙 돌아가려 했으나, 번번이 아내가 막아섰다.

"왜 멀쩡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 헛심 뺄 일 뭐 있다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반 발짝 정도 앞서 걸어 나갔다. 그는, 아내가 자신 앞에서 더 씩씩한 척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때론 그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씩씩한 척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씩씩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위안으로 삼기도 했다.

첼로만 해도 그랬다. 그가 지나가는 청소차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인지 쇼팽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나타 악장을 허밍으로 따라 하다가 '예전엔 정말 나이 들면 꼭 첼로를 배우고 싶었는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을 그의 아내가 놓치지 않고 들었던 것이다.

"첼로? 그걸 배우고 싶었단 말이야?"

그의 아내는 마치 진기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서 말했다.

"뭐, 그냥…… 아이들 생기면 걔네들 앞에서 연주해 주고 싶었거든……."

"그래? 그럼 그러면 되겠네, 뭐."

그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그렇게 말했다. 그는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내 주제에 무슨……'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그 뒤론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다. 한데, 느닷없이 아내가 첼로를 사 온 것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려면 미리 배워둬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배울 곳도 다 알아 뒀다고 했다.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첼로를 어떻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학원은 못 보내주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저쪽 초등학교 근처에 교회 하나 있지? 거기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서로 가르쳐주고 연주도 한다나 봐. 내가 잽싸게 당신 이름으로 등록도 다 해놨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자기가 씩씩하다 못해, 남편까지 씩씩하게 만들 작정이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방바닥 정중앙에 누워 있는 첼로가 마치 육중한 철근 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만 했다.

"아니, 난 악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가 괜스레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서둘러 아퀴를 지으며 자리

에서 일어났다.

"저거 내가 두 달 동안 세 시간 더 일찍 나가서 김밥 만 돈으로 산 거야. 알아서 해."

그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 정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첼로라니……, 허, 거참.

2.

엉뚱하게도 첼로가 그의 일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나머지공부' 직후의 일이었다.

아내의 강권 아닌 강권에 밀려 몇 번 교회 지하실에 딸린 동호회 모임에 나가긴 나갔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좀처럼 첼로에 집중하지 못했다. 동호회 사람들은 하나 같이 친절했고, 전담 회원을 지정해 활 잡는 법부터 현 긋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연신 손목시계를 보며 안절부절못했다. 동호회 모임 시간은 저녁 6시30분. 한 시간가량 레슨을 받고 다시 방에 들러 첼로를 둔 다음, 강남역까지 가려면 언제나 시간이 빠듯했다. 남들보다 좋은 '콜'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그곳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반복해서 계속 수평 긋는 자세를 연습하면서도 딴 생각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활은 자주 사선을 그리거나 선에서 어긋났다.

동호회 모임에 다섯 번째 나갔던 날이던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오늘은 최소한 비브라토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한다'라며 붙잡는 바람에 8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레슨이 끝난 적이 있었다. 그는 첼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헐레벌떡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다가 무의식중에 대리기사 전용 앱을 켰고, 놓치기 아까운 '콜' 하나를 잡게 되었다. 그가 살고 있는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초저녁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콜'이었다. 조금 잰 걸음으로 가면 5분 안에 손님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첼로였다. 첼로를 어깨에 멘 채 '대리'를 뛴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불안하게까지 여겨진 것이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면서도 힐끔힐끔, 어깨에 멘 첼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까짓것, 딱 한 번인데 뭐. 강남 쪽에 가면 단골로 가는 편의점에 맡겨놨다가 새벽에 다시 찾으면 되겠지. 그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좀 더 걸음에 속도를 냈다. 등에선 벌써부터 끈적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계속 운이 좋았다.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강남역에서부터 평창동까

지, 다시 구기동에서 목동까지…… 마치 손님들 한 명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콜'이 떴고, 다른 경쟁자들에 앞서 속속 '콜'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모두 어깨에 첼로를 멘 채로……. 첼로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웬걸, 그는 첼로 덕분에 세 명의 손님으로부터 따로 '팁'을 받기까지 했다. 손님들은 그가 갖고 온 첼로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긴커녕 희한한 듯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왔다. '혹시 어디 소속된 첼리스트 아니냐?' '첼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거냐?' '아무리 어려워도 첼로를 팔아선 안 된다' 등등. 손님들은 그가 답변하기도 전에 지레짐작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조수석에 기대 놓은 첼로 스크롤 부분을 쓰다듬다가 다시 룸미러 속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그는 손님들의 질문에 때때로 난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취한 상태였고, 그의 대답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자기 말만 한 뒤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박에 '밤에는 대리기사를 뛰는 첼리스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어색했지만, 굳이 그들의 생각을 정정하려 들진 않았다. 어쨌든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는 그다음 동호회 모임 때부턴 일부러 첼로를 어깨에 멘 채, 강남역 앞으로 나갔다. 손님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첼로를 메고 뛰어온 그에게, 그래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에게 많은 것을 물었고, 더 많은 '팁'을 주었다.

3.

첼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속칭 '진상' 손님으로 통하는, 반말을 '찍찍 내갈기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십 대 중반의 남자 차를 몰았을 때 일어났다. 종로에서부터 반포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노선에서부터 속도까지, 뒷좌석에 앉아 계속 욕설 섞인 말투로, 취기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다. 그는 최대한 말대답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핸들만 부여잡은 채, 정속 주행을 했다.

문제는 손님이 말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 막 차를 정차했을 때 일어났다. 그때까지 뒷좌석에 기대앉아 있던 손님은, 그제야 조수석에 세워져 있던 첼로를 발견하곤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둔 거야?" 그는 자동차 키를 손님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건 제 첼론데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손님은 그가 건네는 자동차 키를 받지 않았다. "첼로? 무슨 소리야? 당신은 대리기사잖아? 당신이 왜 첼로를 갖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갖고 나온 건데요……."

손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사람 이거, 대리 핑계로 남의 물건 슬쩍 하려는 거 아니야? 잠깐 있어 봐, 우리 기사한테 전화 좀 해 보고." "아니, 이건 분명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첼리스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그는 당황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었다. 손님은 기사와 통화가 되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첼리스트라고? 그래? 그럼 한 번 연주해 봐. 그럼 내 믿지." "여, 여기서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은 몸을 숙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있던 버튼을 조절했다. 그러자 운전석이 뒤로 밀리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날 믿게 해 보라구."

손님은 뒷좌석에 다시 허리를 파묻고 앉아 두 눈을 감았다. 그는 난감했다. 손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손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첼로를 들고 내린다면,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운지법조차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첼로를, 그것도 자동차 안에서 연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는 다시 손님을 향해 말했다.

"저기, 손님……. 이건 진짜 제 첼로가 맞거든요. 저기 빨리 자동차 키 받으시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님이 말을 이었다.

"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성질나면 첼로고 뭐고 다 부숴버리는 수가 있다."

그 밤, 그는 첼로를 배운 이후, 처음으로 낯선 타인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반복했다. 그게 그가 유일한 배운 연주곡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활은 자주 떨었고, 그래서 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현을 그었다. 어쩐지 지금 자신의 모습 모두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만 같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형편없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렇게 십 분쯤 흘렀을까? 뒷좌석 손님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됐다. 연습 좀 많이 해라. 그게 뭐냐?"

손님은 그의 허벅지 위로 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을 놓고 먼저 차 밖으로 나갔다. 카드 결제를 한 손님이었으니까, 그건 분명 '팁'이었다.

그는 첼로를 어깨에 멘 채 아파트 단지를 터덜터덜 걸어 나오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두 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오늘은 꽤 허탕이나 보네."

아내는 말꼬리를 높이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그는 울컥해서 하마터면 소리 내어 울 뻔했다. 그는 심호흡을 길게 한 후, 간신히 짧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많이 바빠?"

아내는 갑자기 도로공사 하는 아저씨들이 밀려들어 와 정신없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자기 무슨 일 있어? 응? 나, 지금 많이 바쁜데."

"아니, 무슨 일은…… 그냥…… 나 이제 첼로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의 말에 아내는 잠깐 침묵했다. 그러자 전화기 안에선 반찬 좀 빨리 갖다 달라는, 남자들의 성마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이 사람이 이거 겸손하질 못하고. 오늘 내가 들어볼 거야, 알았지?"

아내는 언제나 그보다 더 씩씩했다. 그 씩씩함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깨에 멘 첼로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다.

<끝>

하와이안 밥테일 오징어의 투명망토

천운영

작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고단함이 따라온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을 생각하면 어쩐지 먹먹한 기분이 드는데, 고단함에다 치열함까지 덧붙이면 나도 모르게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이 떠오른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일, 기어이 살아남는 일.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들이 펼쳐지던 사바나의 풍경. 어릴 적에 참 좋아했다. 가제와 사자, 병든 사자와 하이에나, 하이에나와 늑대, 물고 물리는 그 냉혹하고 엄중한 세계를 재미있어했다. 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재밌었다. 흥미롭고 짜릿했다. 왕국이라니. 재미라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흥미로운 장면에 대한 재미가 아니라, 장엄함에 대한 경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왕좌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뭐 이리 고단한가 싶은 기분이 들 때면, 나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본다.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다시 질문을 바꿔본다.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러다보면 갑자기 마음의 환해진다.

그렇지, 우리는 모두 세균의 자손들이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지. 먹고 먹히며 가까스로 존재했던 고세균들이 갑자기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잡아먹은 먹이를 소화시키는 대신 몸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었을 때. 그 소화되지 않은 먹잇감이 그 안에서 세포가 되고 기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마쳤다. 이끼로 장구벌레로 소나무로 오징어로 코끼리로 인간으로.

먹고 먹히는 대신, 품고 손잡고 한 몸이 되어가는, 가장 오래된 언어. 공생.

45억년전부터 시작된 지구 생명체들의 진화의 역사를 알아가는 일은, 색색의 종이꽃이 휘날리는 퍼레이드

에 참가한 것과도 같다. 종이꽃에는 우주의 비밀이 쓰여 있다. 하나에 하나씩. 나는 그 한 장을 낚아채 비밀 하나를 획득한다.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 퍼레이드 색종이는 우주의 별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리고, 나는 그 중에 극히 일부, 단 몇 개의 종이만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비밀을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별 몇 개의 비밀을 품었으니 그 얼마나 짜릿한 일인가. 먹고사는 일이 고단하다 싶을 때 나는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한다. 비밀 하나를 엿보기 위해. 짜릿하게 아름다워지기 위해.

오늘의 색종이에는 오징어가 살아가는 법이라 적혀 있다. 대왕오징어도 아니고 다 커봐야 엄지손톱만큼 작은, 하와이안 밥 테일 오징어. 그 조그만 오징어에게 삶의 기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기에.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포식자를 따돌리기 위해 어떻게 먹물을 만들고 어떻게 피부색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은 지구상에 가장 작은 오징어가 먹고사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들 언어에 관한 이야기.
이 지구에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오래된 언어. 공생에 관한 이야기.

22번째 SpaceX 화물보급선이 발사되었다. 보급선에는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이, 인간들 손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진 것이다. 그 애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왔을 때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주공간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작동될까? 바로 그것이 당신네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종족에게 궁금해 하는 점이다.

보급선에 실린 또 다른 종족. 타르디그레이드(Tardigrades). '천천히 걷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걸음이 곰을 닮았다 하여 물곰water bear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인간들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주실험에서 살아 돌아온 이력이 있다. 그들은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영하 20도에서 30년 이상을 버텼으며, 물이나 공기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했고, 방사선이나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도 죽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날 거대운석이 지구와 충돌해 여섯 번째 지구대멸망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전의 다섯 번의 대멸망extinction event에서도 살아남은 종족이니까. 그들은 죽어서 사는 법을 안다.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멈추었다가 때가 되면 재개하는, 생과 사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법을 모른다. 대신 숨는 법을 안다.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다. 몸이 작기 때문이다. 친척들 중에서도 특히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 종족은 수많은 해양생

물의 한입거리, 만만한 먹잇감이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대부분 포식자를 피해 모래무지 속에서 숨어서 지낸다. 모래무지를 파고든 다음 두 팔로 모래알갱이를 끌어와 완전히 덮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점액질을 이용해 모래알갱이를 몸에 붙일 수도 있다.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의 위장전략은 정교하게 진화해 왔다. 물곰의 생사조절 스위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에도 스위치가 있다.

밤이 되면 우리도 은신처에서 나와 사냥을 나간다. 밤이라고 해서 포식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먹이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서 먹잇감을 찾는 방법. 투명망토를 두르는 것이다. 밤이 오면, 수면에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일렁이면, 우리 몸에도 별이 뜨고 달이 뜬다. 달빛과 별빛으로 빛난다. 보름달과 초승달에 따라, 날이 맑고 흐림에 따라, 정교하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줄도 안다. 우리의 자체발광시스템은 아름답게 정교하다. 달빛과 별빛으로 일렁이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빛나면서 사라지고, 빛으로 그림자를 지우는, 자체발광 투명망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가 아니듯, 그 별빛들이 물살에 부서지듯. 저마다 별빛 하나를 품은 우리 종족들이 모여 우주를 만든다. 반짝, 반짝, 일렁, 일렁. 그리고 우리가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종족의 힘이 필요하다. 비브리오 피셰리Vibrio fischeri와의 협업. 공생.

상상해보라, 당신 신체 안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다. 선택받은 종만 출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의, 정족수를 채워야 가동이 되는 일종에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다. 회원들은 아주 예민한 편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하룻밤 잘 놀다 가길 원한다. 출입구에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리 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공간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등도 켜두어야 한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한다. 딱 적당한 수의 피셰리들이 클럽 안에 들어찼을 때, 비로소 스위치가 켜진다. 스타라이트 스위치.

우리 몸 안에서 피셰리들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적응하고 반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박테리아와의 이 화학적 대화는 아주 오래된, 생명의 기본적인 언어체계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세균의 자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구시스템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신호를 읽고 받아들여 새로운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우리 몸속에는 박테리아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상호교신하고 협동하는 범지구적 유전자 교

환 네트워크. 이 공생적 연합은 영구적인 것이다.

다시 상상해보라, 당신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을, 세포들을, 물질들을. 물질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우주의 탄생 때부터 존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협력하는 수많은 유기체들로. 서로 다른 수많은 존재들로, 얽히고설켜 맥박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행성 수준의 현상이다. 우리는 피셰리들 없이는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 피셰리들은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피셰리들은 발광의 파티를 끝내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다시 수면에서 해저로 내려가 모래무지 속에 숨는다. 다시 해가 지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아 모여들어 발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주로 날아간 우리 아이들. 그 애들은 지금 별을 보고 있을까? 우주에서의 별빛은 지구 바다에 떨어지는 별빛과 다를까? 그 빛을 보며 느낄 수 있을까? 선조들이 밤마다 별이 되어 빛나던 순간들을? 그 애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와 다시 지구 바다를 유영하는 날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신호를? 물론이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니까.

<끝>